

강경민 있기에...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기적을 썼다



지난 8일 열린 핸드볼 코리아리그서 11골을 넣은 강경민.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나는 핸드볼 유니폼을 입었을 때 가장 멋지다니 까. 어울리지도 않는 수영복 입고 뛰는지 모르겠다.”

2019년 5월,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지휘봉을 잡은 오세일 감독은 서울에 있는 한 수영장을 찾았다. 2018년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을 떠나 수영 코치로 일하는 강경민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오 감독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강경민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강경민을 설득했지만 의외로 완강하게 거부했다. 오 감독이 세번째 찾아갔을 때야 강경민은 마지막 팀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자 실업 핸드볼 광주도시공사의 강경민(25)이 SK핸드볼 코리아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강경민은 8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경남개발공사와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11골을 넣어 팀의 29-28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까지 총 206골을 터뜨린 강경민은 종전 핸드볼 코리아리그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인 2013시즌 장소희(당시 SK)의 185골을 넘어섰다.

강경민은 코로나19 때문에 도중에 리그가 종료

SK전 11골 폭발... 29-28 승리 시즌 206골로 최다득점 신기록 2년 연속 MVP·득점왕 휩쓸어 19일 SK와 준플레이오프

핸드볼 떠나 수영코치 하던 강경민 오세일 감독 삼고초려로 팀 복귀 만년 하위팀 준PO 진출 이끌어

된 2019-2020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득점왕을 휩쓸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득점 2위 유소정(SK)의 149골과는 50골 이상 차이가 났다.

오세일 감독은 이런 활약의 배경으로 “강경민은 단신이지만 스피드, 어시스트, 개인들과 등 뺀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만년 하위 팀”으로 불린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

의 활약을 앞세워 이번 시즌 8개 팀 가운데 4위로 도약,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9일 3위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단판 승부의 준플레이오프를 치러 승리할 경우 2위 삼척시청을 상대로 하는 플레이오프까지 나갈 수 있다.

강경민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더한 공격 포인트 부문에서도 275점으로 227점의 유소정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원선필은 리그 개인통산 400득점을 달성했다.

어시스트 1위는 103개의 김아영(대구시청), 세이브 1위는 314개의 박세영(경남개발공사)에게 각각 돌아갔다.

방어율 1위는 42.2%의 박미라(삼척시청), 블록슛 1위는 41개의 유현지(삼척시청)가 차지한 가운데 정규리그가 막을 내렸다.

올해 여자부 정규리그는 부산시실업단이 1위를 차지해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고, 챔피언 상대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팀이 된다.

3전 2승의 챔피언결정전 1차전은 24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20일 시작

팀당 10경기...KIA, 광주에서 총 6경기 치러

2021시즌을 미리 살펴보는 KBO 시범경기가 3월 20일 시작된다.

KBO가 9일 2021 KBO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각 팀은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경기씩 소화하게 된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만나는 대구를 비롯한 잠실(KT-두산), 사직(키움-롯데), 장원(SK-NC), 대전(LG-한화) 등 5개 구장에서 열린다.

광주에서는 3월 25-26일 롯데와의 2연전을 시작으로 키움(27-28일), KT(29-30일)와 총 6경기를 치르게 된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 공사가 예정되면서 원정경기가 진행된다. 시범경기 전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진행되지 않는다.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한편 시범경기 일정은 구단별 이동거리를 고려해 스프링캠프 기간 중 연습경기를 가진 구단 간 대진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됐다.

KIA는 스프링캠프 기간인 3월 9-10일 한화(대전), 13-14일 한화(광주), 18일 KT(수원)와 모두 5차례 연습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PGA ‘포포프 룰’ 생긴다...비회원 우승자 차별 철폐

메이저 우승하면 5년 투어카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비회원 우승자에 대한 각종 차별이 없어진다.

LPGA투어 선수회는 올해부터 비회원 우승자 특전 규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고, 투어 사무국이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골프위크가 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비회원이 LPGA투어 대회에서 우승해 받은 상금과 각종 포인트를 인정한다. 종전에는 비회원 우승자는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나면 상금과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투어를 시작해야 했다.

지난해 비회원 신분으로 메이저대회인 AIG 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한 조피아 포포프(독일)는 우승 후 회원이 됐지만, 상금랭킹과 CME 레이스 포인트는 0에서 시작했다.

AIG 여자오픈 우승 상금 67만5000 달러는 포포프의 공식 상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CME 레이스 포인트도 하나도 받지 못한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비회원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 종전에는 2년간 회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회원과 마찬가지로 5년짜리 투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회원이라도 우승하면 곧바로 다음 대회에는 투어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된다.

포포프는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에도 대회 출전에 제약이 있었다.

비회원 우승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 것은 지난해 포포프가 겪은 설움이 여러 번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골프위크는 새 규정을 ‘포포프 룰’이라고 명명했다. /연합뉴스

‘터줏대감’ 여름 가고 ‘괴물 골키퍼’ 윤보상 광주 복귀

1:1 방어 뛰어난 선방쇼 기대

‘터줏대감’ 여름(32)이 제주로 떠나고 ‘괴물 골키퍼’ 윤보상(27·사진)이 광주로 복귀했다.

광주는 9일 “제주유나이티드로부터 광주에서 맹활약했던 골키퍼 윤보상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보상의 복귀에 맞춰 지난 시즌 팀의 주장을 맡는 등 광주의 터줏대감으로 활약했던 여름은 제주로 이적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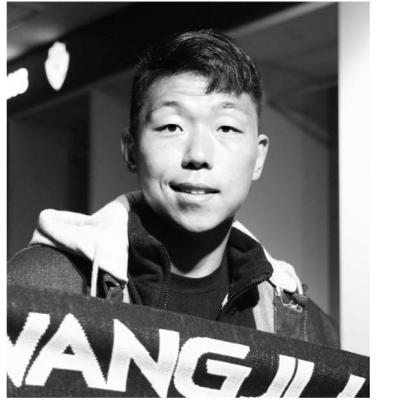
안정된 볼처리 능력을 갖춘 윤보상은 1:1 방어에 뛰어난 결정적인 선방쇼를 연출하는 골키퍼다. 184cm·84kg로 골키퍼로서 큰 체격은 아니지만,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바탕으로 슈트세이브로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괴물 골키퍼’라는 별명을 얻었다. 울산대 재학 시절 2015년 덴소컵 한일대학축구경

기전과 제28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윤보상은 지난 2016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성공적인 프로데뷔 시즌을 보냈다.

신들린 선방쇼를 펼치며 프로 첫 해 22경기에 출장, ‘0점대’ 실점률(21실점)을 기록했고 팀은 당시 1부리그 역대 최고 순위(8위)를 기록했다.

2018년 군 복무를 위해 상주 상무에 입대한 윤보상은 전역 후 제주로 이적한 뒤, 1년 만에 여름과 자리를 맞바꿔 광주로 복귀하게 됐다.

윤보상은 “광주는 나를 발전시키고 완성 시켜준 고마운 팀이다. 고향과도 같은 광주에 다시 복귀하게 돼 기쁘다”며 “돌아왔다고 해서 보장된 주전자리는 없다. 훈련을 통해 경쟁에서 이겨내고, 팀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재성 리그 4호골...킬, 4경기 무패로 선두 맹추격

독일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출신자인 킬의 미드필더 이재성(29)이 두 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무패 행진에 앞장섰다.

이재성은 9일(한국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의 메르쿠어 슈펠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2부 분데스리가 20라운드 원정 경기에 2선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1-0으로 앞선 후반 2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이재성의 이번 시즌 리그 4호 골이자 독일축구협회(DFB) 포갈의 2골을 포함하면 전체 6번째 골이다.

이재성은 지난해 12월 12일 안 레겐스부르크와의 11라운드 멀티 골 이후 2개월 만에 골맛을 봤다.

킬은 알렉산더 뮐러의 페널티킥 결승 골과 이재성의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 최근 2연승을 포함해 4경기 무패(3승 1무)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그 3위(승점 39·골 득실 +15)를 달렸다.

2위 보훔(승점 39·골 득실 +16)과는 승점 차가 없고, 선두 함부르크(승점 41)와도 승점 차가 2에 불과해 선두 추격도 가능한 위치다.

2부 분데스리가에서는 34라운드까지 정규리그를 치러 1~2위 팀이 다음 시즌 1부리그로 직행하고, 3위 팀은 1부리그 16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선두부터 4위 그로이터 프르트(승점 38)까지 치열한 선두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출신자인 킬의 미드필더 이재성(가운데)이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원정경기에서 후반 2분 추가 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킬은 분데스리가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부 승격을 노리고 있다.

이날 킬은 전반 36분 아니 제라가 상대 수비수 케빈 단조에게 걸려 넘어지며 획득한 페널티킥을 뮐러가 성공하며 앞서 나갔다.

이어 후반 2분엔 역습 상황에서 이재성이 추가

골이 나왔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아 몰고 가다 왼쪽의 파비안 레제에게 내준 뒤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들어간 이재성은 레제의 낮은 크로스를 밀어 넣으려 했으나 카스텐마이어 골키퍼에게 한 번 막혔고, 재차 슈팅해 골 그물을 흔들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새해전야
2관	몬스터 헌터
3관	어니스트 씨프, 해피 투게더, 호라이즌 라인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학여행
4관	소울
5관	아이
6관	새해전야
9관	드림빌더, 몬스터 헌터
7관 씨네키움	새해전야, 세자매 세상의 모든 디지털: 러브 사라
8관 씨네키움	소울, 엘프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GAC기획공연 포시즌즈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